꽃 피 – '나'라는 풀에 꽃을 피우라

| **김흥호** |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초목이니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풀에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편집자 주)

요한복음 13:31~35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다시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것이다.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31, 32절이 아주 유명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人子' 그런 말이 네 마디 있습니다. 또 '영광'이라는 말이 네 마디 있습니다. 인자 · 영광, 인자 · 영광, 인자 · 영광, 인자 · 영광,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32, 두 절 속에 인자라는 말이 네 번 있고, 영광이라는 말이 네 번 있지요.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31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 되어서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예수님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3절,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27절,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

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또 아래에 주기도문 맨 마지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환빛'이라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보」 1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해서 환빛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저로 해서 환빛을 제게 주시니." 그렇게 바꾼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보좌에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단테 Alighieri Dante 같은 사람이 천국을 그릴 때에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대개 빛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지요. 천사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빛으로 하는 수밖에. 그러니 하늘의 세계도 빛으로 밖에는 그려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빛'이라는 것이지요. 묵시록 마지막에 "해와 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세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해와 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세계, 그렇게 밖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겠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동해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나옵니다. 해가 뜨면 훤하게 아침이 밝아오는 거지요. 훤하다가 나중에는 환해서 환빛이 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를 조선朝鮮이라 할 때 이 아침 조朝 자가 정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궁화 삼천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또 무궁화 꽃피는 것이 나와요. 이 영광榮光이라는 영 자가 한문으로는 나무에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꽃필 영榮 자지요. 그래서 꽃이 핀다. 아

침에 동해에 해가 뜰 때 우리 무궁화 삼천리에 꽃이 핀다. 그래 꽃필 선鮮이겠지요. 아름다울 선, 고울 선,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을 바꾸어 보면 환빛, 꽃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환빛(태양), 꽃피(무궁화), 그래서 제목을 〈꽃피〉라고 했습니다. 꽃이 핀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는데 그래도 좀 잘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태양에다 비유하고 사람을 초목에 비유한 것이지요. 독일의 시인 헤벨Friedrich Hebbel은 "인생은 초목, 하늘에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하이데거는 여기 저기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플라톤도 태양으로 표현했어요.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했지요. 물론 '태양'이라고 할 때는 비인격적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이치와는 잘 맞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목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Meister J. Eckhart는 "태양은 하늘의 눈이고, 꽃은 땅 위의 태양이다. 꽃이 태양을 볼 때 사실은 태양이 태양을 보는 것이고, 눈이 눈을 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지요.

중국 사람들은 국기를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라 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태양, 푸른 나무의 꽃이지요. 공자 같은 사람도 사람을 나무에 핀 꽃이라고 했어요. 나무에 핀 꽃을 확대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뜬 태양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대우주와 소우주가 청천백일과 푸른 나무에 핀 꽃에 일치시켜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짐작이 가지요. 물론 이 모든 초목은 다 태양에서 옵니다. 모든 초목이 태양을

향해 줄기를 뻗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향일성向日性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보고 싶어 하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울 때만 꽃과 하늘의 태양이 마주 보게 되는 거지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풀에 '그리스도'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이 핀 것 아니겠어요. 또 '내가, 내가 된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말도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태양이라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꽃이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풀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나.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많이들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 프란시스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암만해도 내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옆에 있는 도끼로 나무를 절반 딱 쪼개더래요. 그리고서는 "이 나무속에 꽃이 있는가?" 물었답니다. 그 사람이 "나무속에는 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성 프란시스는 그에게 "꽃을 나무속에서 찾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자칫 내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보아야 내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니니까 믿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나무속에 무슨 꽃이 있습니까.

그러면 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면 오늘 성경 말씀도 아는 겁니다. 꽃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지요. "봄이 오면"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양을 만났다는 소리지요. 겨울에는 태양이 멀리 가 있다가 봄이 되면 태양이 가까이 와서 환하게 떠올라오니 환빛이지요. 환빛이 되면 꽃이 피는 거지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지요. 내 속에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어야 꽃이 피는 거지요.

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을 만난다는 뜻이지요. 태양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피'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재간도 없고, 소질도 없고, 장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지요. 그것은 나무속에서 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아

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히 소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즉 꽃이 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때려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온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태양을 만나야 꽃이 피고, 봄이 와야 꽃이 핍니다. 선생님을 만나야 꽃이 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언제나 만나는 것이 먼저이고, 꽃피는 것은 나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레미파도 모릅니다. 음악이라면 통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는 음악엔 재간도 없고, 소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절망에 빠지면 나는 그대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김자경 같은 선생을 만나서 음악을 배우면 나도 독창회를 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할 때 내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영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김동길 선생 같은 이를 만나 영어를 배우면 나도 얼마 후에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듯 선생을 만나면 자기 속에 숨어 있던 소질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선생님을 못 만나면 영원히 없는 그대로이고 말지요. 그대로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을 만나면 사람이 되고, 선생을 못 만나면 사람이 못되는 거지요. 만나면 되는 거고, 못 만나면 못되는 거예요. 만남을 한마디로 봄이라 그럽시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그것을 태양이라 그럽시다. 환빛이라 그럽시다. 환빛이 있으면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인생은 초목,
하늘에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2천 년 전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천 년 전의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길道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다고 한 말, 여러분은 아시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자는 "선생님을 멀리 가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 두 사람은 네 선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을 자기보다 높은 곳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하늘입니다. 지상 한 치 한 치가 하늘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추상화하면 안 됩니다. 구체화하도록 해야지요. 내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아 국무총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 보라고 했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는 거지요. 아무개가 제일 잘났다고 하면 또 그 사람을 찾아가 누가 제일 잘났느냐고 물으면 누가 제일 잘났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는 거지요. 선거할 것도 없습니다. 투표할 것도 없어요. 그저 그날로 다 알게 되지요. 길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꽃은 저절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빛, 꽃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꽃이라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꽃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꽃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꽃다운 피를 흘렸지요. 꽃다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꽃피입니다. 보혈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꽃다운 피를 흘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꽃피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꽃을 피운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꽃을 피운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꽃다운 피를 흘린 꽃피요, 사랑의 꽃을 피운 꽃피에요. 그래서 꽃피와 꽃피가 하나가 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인생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비참과 위대가 통일된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타났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며 가장 위대한 것이니까, 그 위대와 비참이 통일된 자리, 그것이 십자가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위대한 줄만 알면 인생은 교만에 빠지고, 인생이 비참한 줄만 알고 위대한 줄을 모르면 인생은 태만에 빠진다. 고로 인생은 언제나 비참 속에서 위대를 생각해야 되고, 위대 속에서 비참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은 겸손해지고, 근면해진다. 그러니 사람이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겸손과 근면이다. 거기에 인

생의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조正祖가 정다산丁茶山을 황해도 곡산谷山 군수로 보냈습니다. 곡산이라고 하는 곳은 산골짜기이기도 하지만 밤낮 산적이 나오고, 세금 내는 놈 하나 없고, 밤낮 싸움판이고, 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다산이 그곳에서 2년간 군수로 있는 동안에 곡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정다산은 아주 초기의 크리스천 아닙니까. 정다산의 형은 예수를 믿는다고 목을 잘리고 정다산과 정다산의 맏형은 예수를 믿는다고 18년 동안 귀양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다산입니다. 곡산이 가장 좋은 도시가 된 것을 왕이 기뻐함으로써 왕 자신이 영광을 받고 정다산을 불러서 형조참의(요즘의 대법원 판사)를 시켰어요.

앞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더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땅을 하늘로 만들고 말았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 올렸습니다. "너 거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본부로 오너라. 그래서 내가 맡았던 – 요즘 말로 국무총리라 그럽시다 – 국무총리를 네가 해라." 이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에게 영광을 주셨도다. 이제 곧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셨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이제는 본부로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서 이제는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 지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세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별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는 것이고, 죽음이란 다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이 땅 위에서 한 일의 몇 천배, 몇 만 배 되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죽음입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올라서서 꽃피를 흘리고 꽃을 피울 것이라는 말입니다.(끝)

• 이 글은『김흥호 사상 전집 –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흥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사람 삶 사랑』, 제2권『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믿음의 힘』, 제5권『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영원을 사는 사람』

노자 · 노자익 강해

김흥호 저 | 사색 刊 | 48,000원

이 책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7회 강의한 내용이다. 교재는 권재 임희일의『노자권재구의』이고, 부교재는 초횡의『노자익』과 저자의 보충자료들이다. 책의 구성은 노자 도덕경의 해석과 노자구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저자가 발췌한『노자익』(초횡)에 나오는 주해들 및 기타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횡의 노자주 발췌 등, 종래의 노자 해설들을 집대성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문을 한 줄 한 줄씩 풀이하며 강의해나간 내용을 녹취하여 강의의 현장감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편집했다. 한문을 전혀 몰라도 이야기를 듣듯이 편하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흥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흥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흥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흥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흥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는「원본집주 주역」(명문당)을 사용했다.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학자 김흥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나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흥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입문의 | 히어나우시스템 | 02-747-2262